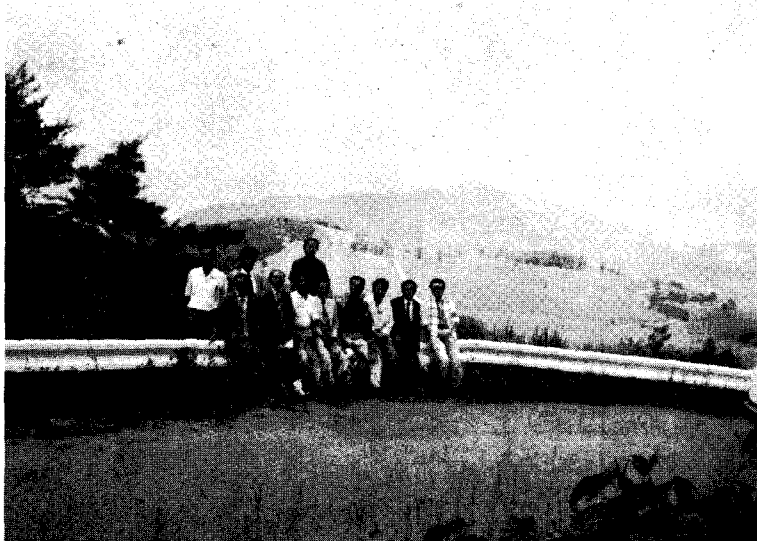


日本 山形縣 委託育成牛牧場

平澤世정목장 이 정 용

지난 6月26日 부터 10日간 山地酪農協議會와 자매결연이 맺어진 日本國 山形縣 酪農協同組合 連合會의 招請으로 一行 9명이 山形縣의 酪農現況과 北海道地方의 낙농실태 등을 두루살

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그곳에서 보고 들은 바를 낙농가 여러분께 다소나마 참고가 될 까하여 기술하는 바이다.



〈사진은 山形縣 畜産振興公社 草地와 視察團一行〉

■山形縣의 실태를 보면 일본 동북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양 질미(良質米)의 생산과 과수, 축산 등의 비중이 높은 지방이며 일본의 豪雪지대의 하나로서 겨울은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토지면적 932,613ha중 산림 71.5% 농용지 15.9% 기타 6%이며 낙농은 주로 山地酪農이 위주이고 우유 생산량이 연간 8만5천톤으로 縣別 순위로 일본 전체의 21번째로서 복합 영농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

그곳의 낙농업은 연륜적으로는 우리보다 다소 앞서 개발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경영면에 있어서는 착유만을 위주로 하는 이른바 도시 근교형 낙농가가 상당수였고 특히 토지 소유면에서는 작물포나 초지를 거의 갖고있지 않고 우사만으로 맥주박 등 농산부산물과 농후사료에만 의존하면서 연중 우사내에 계류한채 착유만을 영위하는 착유위주의 낙농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이러한 낙농가들도 착유우 보유 두수는 20두 내외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착유량에 있어서는 두당 연간 5,000kg을 상회하고

있었으나 후보축을 위한 육성우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 특이하게 보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착유위주의 낙농가에서는 도태 교체를 위한 후보우를 육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이와같은 낙농가들을 위하여 후보우들을 육성만 하여 주는 위탁육성우 목장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후계우 육성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꼭 마련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山形縣에서 직접 개설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육성우 목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 목장명 : 사단법인 山形縣畜産振興公社
- 소재지 : 일본 山形縣 上市市 小倉字 大森山.
- 설립년월일 : 1975년 4월 1일

출자단체명	합	計
축산진흥사업단	90,000	千円 (일화)
山形縣	118,000	千円
市町村 經濟連	82,000	千円
합	290,000	千円

□ 주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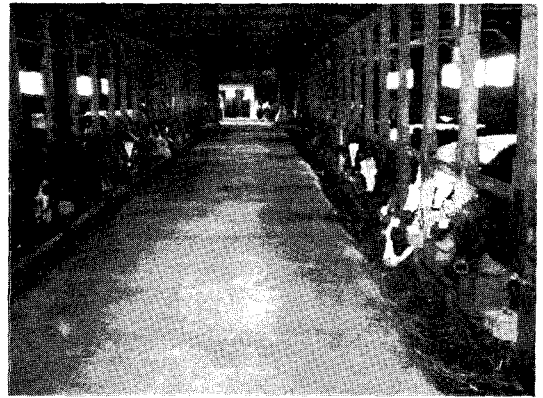
- 유용우의 周年育成事業
買收子牛의 육성우 : 우량한 암소로부터 생산된 후보우를 매수하여 육성 수정시킨 후 분만 3~4개월전에 낙농가에게 분양.
- 위탁육성사업
山形縣内の 낙농가로부터 생후 6개월 전후의 육성우를 위탁받아 육성 수정 시킨후 분만 3~4개월 전에 낙농가에 되돌려 준다. 단, 소정의 수탁료를 받음.
- 우량우 증식공급사업
공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기초암소에서 생산된 우량 암송아지를 육성 수정하여 분만 3~4개월 전에 농가에 분양.
- 가축사양규모 (현재)

구분	두수	설	명
유용우	육성우	285	위탁우 160 매수우 100 생산우 25
	번식빈우	28	우량우 28
육성우	육성우	15	생산우 15
	번식빈우	20	

- 위탁료 : (1983년 4월 1일 현재)
1일 1두 450円 (한화 약 1,500원)
- 목장의 개요
총면적 270.5ha
표고 450~930m
- 초지이용구분

방목지	채초지	경용지	생산 목표	
			건초	싸이래지
90.9ha	61.8ha	28.5ha	150 M/T	500 M/T

위의 위탁목장의 토지는 일부는 縣축산진흥공사 소유이나 대부분은 임대한 땅으로 임대료는 ha 당 연간 15,000円 (약 50,000원)을 지불한다고 하며 연간 육성위탁료 1일 1두 450円은 금년 4월 1일 결정된 것이나 실제의 육성원가는



〈사진은 계류 사사하고 있는 광경〉

1일 1두 약 700円 (2,310원)이며 차액은 縣에서 보조 지급되고 있었다.

山形縣에는 위의 축산진흥공사 이외에도 몇개의 축산단체 경영의 위탁육성우 목장이 있는바 모든 위탁 육성우 목장은 비영리기관으로 희망 낙농가로부터 육성을 위탁하여 오는 후보자우를 육성하여 줌으로써 현내의 낙농생산업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실제로 육성중인 후보우들은 이른봄 부터 늦가을 까지 초지에서 방사함으로써 육성 완료된 후보우들은 체형면에서도 대단히 훌륭할 뿐 아니라 모우로부터 이어 받은 비유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육성되고 있었다.

다만 이곳에서 완벽하게 육성되어 낙농가로 되돌아간 후보우들은 일생을 그 대부분이 우사 내에서 계류사사되면서 분만과 착유만을 영위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위탁육성방식으로 후계우의 대를 이어가면서 착유만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의 설명에 의하면 산유능력이나 번식능력에 있어서 비교적 만족스런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하며 오히려 가장 값이 싼 경제적인 우유생산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여 극단적인 표현을 빈다면 육성우의 육성과정만 완벽하게 하여 놓으면 착유기간

우유에 다소 부적당한 사육을 하더라도 산유능력과 분만능력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사고방식이었다.

우리나라의 낙농실태를 보면 대규모에 이르러서는 규모나 사양기술면에서 낙농선진국 수준에 비견되는 목장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착유위주의 영세하고 기술상으로 낙후된 도시근교형 목장이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착유 위주 목장에서는 대를 이을 후보우의 육성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모처럼 훌륭한 유전형질을 타고난 송아지라고 할지라도 소망스런 후보우로 육성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육성과정에서 폐우화되다시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러한 도시근교 낙농가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우유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위탁육성 우 목장을 개설하는데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산지의 초지화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 비교적 지가가 싼 야산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육성우 전업 목장을 각군에 조직되어 있는 축산협동조합이나 기타 유관기관에서 국공유지들을 임대하여 국가 시책으로 육성하면 유우능력개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지며 이와같은 사업을 관계 당국에서 우리나라 낙농발전을 위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편 같은 山形縣內에 있는 下川原農事組合을 소개하면 현일본의 농업은 백미 과잉생산 상태에서 생산 감소조치의 일환으로 1979년에 畜作轉作促進特別對策事業 명목으로 下川原農事組合(組合員은 4戶 11名)에 총사업비 63,661,000円(日화) 中 국·현 보조금 38,196,000円 대여금 20,330,000円 20년상환 년 3%利子(農業近代化資金) 자기자금 5,135,000円으로 현재 유우 80두, 각종 낙농 기자재 분뇨 제거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1987년도 목표를 보면 젖소 육성우 등 300두 사육계획 하에 노력을 하고 있어 이와같은 일본 정부의 시책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정부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군소 목장과 농기구 공장도 여러 곳을 보았으

나 참고에 지나지 않았고 明治乳業山形工場에서의 原乳 집유관계를 기술하여 보면 집유는 거국적으로 낙협 또는 농협등 단체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검수방법은 지방에 따라 자기 상이하나 전기 유업체에서는 협동조합에서 집유된 원유가 공장으로 입하가 되면 검수업무는 해당 농가에서 선출된 검수원인 농민 책임하에 검량, 유지방 측정 기타 검사를 거쳐 수유업체에 총량으로 인계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다.

山形에서 3박 4일의 시찰을 끝내고 北海道에 3박 4일로 登別 곶 목장을 비롯하여 등록우 목장과 농기구 공장을 돌아보고 동경을 거쳐 靜岡縣의 富士山麓에 정채적으로 개간된 낙농지대와 淡路島의 등록우 사육지대를 돌아볼 예정이었으나 날씨관계로 기회를 얻지 못하고 箱根일대의 농촌과 京都, 奈良 등 고적지대를 살펴보고 예정대로 귀국하였다.

10박 11일동안 여행 중 우리나라와 특이하게 다른 점은 東京, 大阪 등 대도시는 시민들이 모든 질서 의식과 행동이 정돈돼 있고 친절하고 책임감이 투철한게 엿보였으며 소도시 농촌의 거리는 간혹 눈에 띄게 사람들이 한산하고 주택 도로 등 도시와 격차가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시찰단 일행은 다음과 같다.

단장	진재량	광주	산지낙농부회장
통역	이정용	평택	세정목장대표
총무	최윤목	천안	원호 "
	조세증	목천	광주 "
	허 숙	병천	나나니 "
	안승태	아산	탕정 "
	박철주	천안	한성 "
	이준영	직산	기선 "
	진철호	광주	광일 사육과장



〈視察團一行과 山形縣酪協幹部〉